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왕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 바쳐진 왕이라는 이 칭호는 그분의 전 생애 중 시작과 마지막에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유다인의 왕을 찾는 박사들을 외양간으로 인도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달아 둔 조소의 명패에 이 칭호가 나타납니다. 외양간에서 십자가로,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참 기이한 경력입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성탄절 전설 중에 <넷째 왕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멜키올(Melchior), 발타살(Balthassar), 가스팔(Caspar) 외에 다른 한 왕의 삶을 보여 주면서 외양간에서 십자가까지의 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황금이나 유향 또는 몰약이 아닌 귀한 보석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넷째 왕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왕은 길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다섯 군데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서 다 죽어가는 한 어린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 아이를 안고 마을을 찾아 데려가서는 자기가 가진 3가지 보석 중 하나를 주고는 아이를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왕은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아이들과 그 어머니가 남편의 주검 뒤를 따라가는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죽은 남편은 많은 빛을 떠안은 채 죽었기에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야만 될 처지였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또 하나의 보석으로 그 빛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에게는 하나의 보석만 남았습니다. 왕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그 마을은 군인들에게 점령되어

서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살리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귀한 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말 한 필 뿐이었습니다. 왕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계속 가다가 그 왕은 어떤 노예를 만났습니다. 그 노예는 자기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다 부인과 아이들을 버려둔 채 큰 배의 노 젓는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자기 말을 넘겨주고 그자를 대신해서 노 젓는 노예로 배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한참 흘렀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왕의 머리는 벌써 반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름도 모르는 어느 외국 땅에서 사형집행을 지켜보기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군중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형날이었습니다. 못 박히신 분의 눈길이 자기를 내려다 보았을 때 왕은 불현듯 거의 전 생애 동안 순례했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자기의 빈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왕의 뻗어진 손에 세 방울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세 방울의 피는 자기가 가졌던 세 가지의 보석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성경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은 역사 속의 일반적인 왕과도 전혀 다른 왕이시며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하나도 닮지 않은 그런 왕이십니다. 이 왕이 이룩하려는 왕국 또한 결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 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고, 소외 받고 보잘 것 없고 죄인 취급받는 이들을 벗으로 대접하는 독특한 방법 즉 사랑의 방법, 섬김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축일을 지내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평평거리는 삶을 사는 왕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느님께 청하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의 왕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과 같이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러시아의 <넷째 왕의 전설>에 나오는 그 왕처럼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에서 떨어지는 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령 본당 김시영 베드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며, 세상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스며들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완성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전례를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 7장 13절-14절

안 내 : 다니엘 예언자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 앞으로 인도 되는 모습을 봅니다.

목 상 : 우리가 믿어 고백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와 사랑과 평화의 왕이셨고 인류를 죄와 죽음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하신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힘이셨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1장 5절-8절

안 내 :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눈이 보리라고 하십니다.

목 상 :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18장 33절-37절**

강 론 :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왕’(1-2쪽)

예물준비성가 : 221번 ‘받아주소서’,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사랑의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사랑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실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봉사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 공소사목 성금

이성우	200,000원
신산공소	100,000원
김중기	100,000원
오일창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31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 창간

- 2019년 1월 6일부터 「가톨릭 안동」 주보가 발간됩니다. 아울러 공소사목은 폐간 되며 개인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열린성경강좌 8

- 일시 : 12월 10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

■ 공소봉사자 연수

- 일시 : 12월 7일(금) 13:30 ~ 8일(토)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인 25,000원

■ 여학생 수도 성소자 모임

- 안동/북부지구 일시 및 장소
12월9일(주일) 14:00/휴천동성당
- 상주/문경지구 일시 및 장소
12월16일(주일) 14:00/모전동성당

■ 예비신학생 피정 및 종강미사

- 일시 : 12월 15일(토) ~ 16일(주일)
(파견미사 :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2월 17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바오로딸 성서주간 특별할인

- 성경 관련 바오로딸 도서 140여종 10% 할인
- 기간 : 11월 24일(토)~12월 1일(토)
- 문의 : 안동 바오로딸 서원(054-859-6040)

■ 레지오마리에 평의회 간부 간담회

- 일시 : 12월 2일(일) 09:30 ~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강당동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및 총회

- 일시 : 12월 9일(주일) 16:00 ~ 20:00
미사 16:30
- 장소 : 상주 남성동 성당
- 준비물 : 미사준비, 활동보고 및 활동예정 준비
- 신청 : 12월 3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향심기도 2박 3일 심화피정

- 일시 : 12월 7일(금) ~ 9(토)
- 장소 : 평화계곡 피정의집
- 회비 : 14만원
- 신청 : 010-3422-7587

■ 갈전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판매사업

- 영양토마스 고춧가루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전통방식으로 만든 메주 판매 : 1장 2만원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는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상담 및 주문 :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2019년 전례 꽃꽂이 모임

- 일시 : 2019년 1월 5일(토) 10:3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상 : 본당 꽃꽂이 담당, 전례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

■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교 합격자

- 손지호 사도요한(용상동 본당)
-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돌게 하네”(시편 19,8)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일 년 동안 ‘성경의 해’를 준비하는 첫 번째 주제는 ‘말씀과 삶’이었습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또한 말씀과 깊이 동화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새로이 맞는 일 년 동안 우리는 ‘성경의 해’를 준비하는 두 번째 주제인 ‘성경이 증언하는 삶의 생기’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는 성경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전해 주는 위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살면서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노력을 쇄신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하느님 말씀의 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서는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살아 있는 도구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계획들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자비와 비참」, 7항 참조).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인 제34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성서 사도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은혜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모든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애정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우리는 올 해에 서른네 번째 성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에 성서 사도직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소명 의식을 높이고,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 삶의 생기를 복돋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편 저자는 주님께서서 우리 삶과 영혼에 생기를 돌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 내 영혼에 생기를 돌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시편 23,1.3).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돌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이를 슬기롭게 하네”(시편 19,8). 시편 기도는 이렇게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말씀이시기에, 주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기를 복돋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하느님과 같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며 죽은 이를 살리시고, 병든 이를 고치시며 가난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음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리듯,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영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청하던 불구자를 치유한 후, 솔로몬 주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사도 3,19-20).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통회하고 하느님께 돌아서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생기를 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불구자는 베드로 사도 일행과의 만남을 통해 단지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치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함으로써 멀어졌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기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초에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 2,7). 인간이 죄로 인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다시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어(요한 20,22) 구원받은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회개와 통회는 이 은총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입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으신 말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과 영에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삽시다. 교부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즐겨 대하면,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새 생명의 은총을 모든 신자들이 체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영혼에 이러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11월 25일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만추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해마다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보통걸음으로 남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달려서 지나가는 것 같다. 잠깐 눈부시더니 어느새 빛이 바래고 바람에 속절없이 진다. 들판도 하루가 다르게 비어간다. 가을은 오자마자 떠나려고 한다. 겨울맞이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가을이 짧으니 겨울은 더 오래 것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줄일 것은 줄이면서 훌가분하게 이 침묵의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 텃밭과 마당을 설거지하고 책장과 옷장도 좀 비워야겠다. 습관이 된 모임이나 이름만 걸어둔 단체를 정리하고 힘이 부치는 일에서도 물러서야겠다. 이제 그래야 할 나이가 되었다.

지난달에 테니스회에서 나왔다. 한때 테니스에 빠져지냈는데 다리에 무리가 와서 라켓을 놓은 지 이 년이 되었다. 즐거운 기억도 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 회한도 있다. 사십 년간 정도 많이 들었지만 그들과의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싶다.

성령봉사회는 나에게 특별한 공동체다. 이십 년 전 명퇴를 하고 나름 부지런히 달려왔다. 착한 이들과 그분이 늘 함께 하셔서 행복했다. 연말에 소임을 내려놓으면 한발 뒤에서 기도하며 필요할 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기쁨은 여전 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나섬학교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학교에 그만 두기로 마음먹었다. 갈수록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워진다. 나이 차와 생각 차이는 정확하게 비례해 가는 것 같다. 이것은 관심과 열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몇 사람과 얘기했지만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마침 상근하는 두 선생님도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학교는 위탁형 대안고등학교다. 본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와서 잠시 쉬면서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난 십이 년 동안 이백여 명의 학생들이 일 년 혹은 이 년을 머물다 갔다. 여기서 중도탈락의 위기를 넘기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했다. 답답할 때도 많았고 아찔한 적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이 아이들도 엄연히 고등학교 재학생들인데 교육당국의 지원은 미미하다. 너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 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러니 제대로 운영할 방법이 없다. 도내에 십여 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일이 년을 버티지 못한다. 우리는 그나마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교사를 빌려 주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제과 실습 날이라 아침부터 부산하다. 반죽을 하며 장난치는 모습들이 귀엽다. 애들이 어디 문제아들인가. 일학년보다는 이학년이 이학년보다는 삼학년이 더 어른스럽다.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아이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학교 일도 잘되어지리라 믿고 기다리자. 선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나서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올겨울은 되도록 단순하고 훌가분하게 지내면 좋겠다. 어디서든 적게 말하고 거기가 내 자리인지 살펴보며 앉자. 부디 섭섭지 말고 외롭지 말기. 그리고 오늘마다 이 순간에 충실하자. 만추의 햇살이 눈부시다. 당신은 더 눈부시다.